조선일보 - 1930 . 05. 15/ 4면/ 5단

헤-겔辨證法과 맑스辨證法과의 關係 (二)

헤-겔과 唯物辨證法-(□)

쎄-샌링

金亨後

나는 압헤서 『헤-겔』辨證法을 □□로 抽象的인 것으로 見做한 『엥겔스』의 意見을 引用하엿다. 그런데 『맑스』는 『헤-겔』의 辨證法의 神秘的 形式을 指摘하여서 거긔에 合理的 形式을 對□한 最初의 人이다.

맑스는 말하되 『辨證法은 그 神秘化 된 形態에 잇서서는 獨逸에서 流行이 되엇다. 웨 그러냐하면 現在의 事態에 붸-루를 붓칠 可能性을 與하는 것 가티 보임으로써 이다』라 하얏다.

神秘的 外被는 現實의 實在的 諸 關係를 掩蔽하며 具體的인 것을 論理學幻想에 轉化식히며 그리하야 이 論理學幻想을 오즉 한 개의 實在性에 轉化식히엇다. 『맑스』는 말하되 『나의 辨證法的 方法은 根本的에 잇서『헤-겔』의 그것과 다를 쌘만 아니라 그와 正反對의 것이다. 『헤-겔』에 잇서서는 그가 理想이라는 일음 알에서 獨立的 主觀에까지 轉化식힌 思考過程은 그것의 外的 表現에 不過한 現實性의 造物主이다. 이와 反하야 나에게 잇서 觀念的인 것은 人間의 頭腦 가운데 □□되엇스며 加工한 物質的인 것에 不過하다』라고 이리하야 『맑스』의 方法은 두 關係에 잇서 『헤-겔』의 方法과 다르다.

第一에 『맑스』의 方法은 그 出發點, 그 認識的 □□(思惟와 存在의 相互關係의 問題를 解決하는 意味에 잇서서의)의 點으로 보아 또 世界觀 一般으로 보아 『헤-겔』의 것과는 다르다. 第二에 -이것도 한가지로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 잇지만-『맑스』의 方法은 具體的인 것과 抽象的인 것 物質的인 것과 形式的인 것과의 關係의 問題를 別樣으로 解決하엿다는 意味에 잇서 『헤-겔』의 方法에 對立하여잇다. 이것은 『맑스』의 唯物論的 世界觀 一般에 直接關係가 잇다. 『맑스』가 『헤-겔』辨證法의 神秘的 及 神秘化的 形式으로서 理解한 것은 『헤-겔』에 잇서서는 幻想論理學的 圖式의 形式을 取한 眞의 具體的인 것으로서 現出하엿다. 이 까닭에 『맑스』는 무엇보다. 도 몬저 神秘的

形式의 背後에 合理的 形式 卽 抽象的 幻想의 現實的 內容을 □□식히는데 當面하엿다.

前記의 『資本論』 第一卷 第二版 序文에 잇서『맑스』는 말하되 『나는 헤-겔 辨證法의 神秘的 方面을 殆히 三十年 前에 批判하엿스나 그 當時에는 헤-겔 辨證法은 오히려 非常히 流行하고 잇섯다』고 하얏다. 이곳에 『맑스』는 今日 처음으로 同志『리자노프』에 依하야 發表된 『헤-겔 法律哲學批判』 及 『神聖家族을 爲한 準備的 勞作』을 指示하엿다. 이 後의 勞作에는 『헤-겔辨證法에 對하야 우리는 如何히 할 것인가?』라는 特別한 單이 잇다. 나는 지금 이곳에 『맑스』의 그 勞作을 理論的으로 分析을 加하기까지 가지 안흐나 아래의 것을 强調하여둘 必要만은 잇다고 생각한다. 말하자면 『헤-겔』辨證法에 對한 『맑스』의 批判은 일은 바 具體的인 것의 □利를 確立하기 爲하야 나의 압해 提示한 『헤-겔』自身에 잇서 抽象的인 것과 具體的인 것과의 矛盾을 暴露할 것을 그럿타고 하면 抽象的으로 觀察되는 自然도 同□으로 無이다.

(以下는 本 論文 第一回과 그 前回 分사이에 挿入될 것이옵)

『슈밋트』의 勞作에는 그것이 完全히 獨立獨步적으로 쓴 것 가튼 痕迹이 잇스나 『헤-겔』辨證法의 批判에 잇서서는 『슈밋트』가 一面으로는 『헤질싸하』의 影響을 바닷스며 他面으로는 更히『맑스』의 影響도 바든 것 가튼 것은 우리에게 잇서 疑心업는 일이다. 그러타고 하면 『슈밋트』에 對한 『맑스』의 影響의 問題가 如何한 것이며『헤-겔』에 對한 『슈밋트』의 批判이 그 根本에 잇서는 『맑스』와 『엥겔스』의 批判에 一致하고 잇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.